

## 이란의 권력구도와 정치운동 및 핵 문제

유달승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

2009년은 이슬람혁명 30주년이자 호메이니 사망 20주년이다. 2009년 6월 12일 제10대 이란대통령 선거 이후 이란에서 나타난 대규모 시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였다. 6월 19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연설 이후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대규모 시위는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번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위대의 구호도 점차 변하고 있다. 시위대의 구호는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서 정권퇴진운동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이번 사태는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향후 이란의 권력구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하고 있다.

지금 이란은 새로운 정치 실험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이란 국민들의 선거 열기와 정치 참여는 이슬람혁명 이후 또 다른 이슬람 정치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이슬람과 서구식 민주주의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치 실험을 의미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슬람공화국 체제의 방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사태는 이슬람혁명 이후 또 다른 이슬람정치 실험을 의미한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최고지도자의 자격과 선출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2572 (697-120)  
전화: 064)735-6500 팩스: 064)735-6512  
E-mail: policyforum@jpi.or.kr <http://www.jpi.or.kr>

「JPI 정책포럼」에 게재된 의견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제주평화연구원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ISSN: 2005-9760

목 차

- 1. 서론
- 2. 이란의 중요성
- 3. 이란의 권력기관
  - 가. 최고지도자
  - 나. 대통령
  - 다. 주요 헌법기구
- 4. 이란의 정치구도와 향후 전망
  - 가. 이란의 정치구도
  - 나. 2009년 대선과 향후 전망
- 5.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현황과 전망
  - 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 나. 이란 핵시설 파괴 가능성 VS 이란의 핵 민족주의
  - 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전망
- 6. 결론

1. 서론

- 2009년은 이슬람혁명 30주년이자 호메이니 사망 20주년임. 2009년 6월 12일 제10대 이란대통령 선거 이후 이란에서 나타난 대규모 시위는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최대 규모였음.
  - 6월 19일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연설 이후 정부의 강경대응으로 대규모 시위는 벌어지고 있지 않지만 이번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음.
  - 이란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위대의 구호도 점차 변하고 있음. 시위대의 구호는 부정선거 규탄 시위에서 정권퇴진운동으로 이어졌음. 따라서 이번 사태는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고 향후 이란의 권력구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상징하고 있음.
- 이란이슬람공화국 헌법은 이슬람법학자통치론(Velayat-e Faqih)과 이슬람법을 토대로 구성되었음.
  - 호메이니의 이슬람법학자통치론은 “이슬람법을 올바르게 해석할 수 있는 이슬람법학자에 의한 통치”를 의미함. 이슬람법학자통치론은 이슬람법학자가 통치하는 사회를 의미함.
  - 이슬람법학자통치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최고지도자임. 최고지도자는 대통령 위에 존재하며 정부의 정책과 법률이 이슬람법에 어긋나는 지의 여부를 지도하고 관리함. 이슬람혁명 이후 호메이니가 최고지도자였고 1989년 호메이니 사후 하메네이가 이 지위에 올라 있음.
  - 2009년 대선 이후 최고지도자의 자격과 선출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

2. 이란의 중요성

- 이란은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임.

- 이란의 원유 매장량은 세계 원유매장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1,362억 배럴로 추정되고 이는 세계 2위이고 세계 4위의 원유 수출국임.
- 천연가스 매장량은 러시아에 이어 세계 2위임. 천연가스 매장량은 29조 6,000억 입방미터로 세계 천연가스 매장량의 16%를 차지하고 있음.
- 이란은 세계 에너지 생명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중요한 호르무즈 해협을 끼고 있음.
  - 호르무즈 해협은 전세계 석유공급의 1/5을 차지하는 중요한 수송로임. 이란은 역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론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전개해 옴.
  - 호르무즈 해협은 폭이 50 km, 최대 수심이 190 m이고 해협의 중간에 위치한 섬 3개에 이란은 해상공격용 대포와 미사일을 배치해 놓았음.
- 이라크전쟁 이후 중동의 정치지형이 새롭게 재편되고 있음.
  - 현재 중동에서는 시아파가 새로운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음. 이라크에서는 시아파 정권이 수립되었고 레바논에서는 헤즈볼라가 가장 강력한 정치세력으로 등장했음.
  - 이란은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로 이라크, 헤즈볼라와 함께 시아파 연대를 구축하고 있음.
- 이란은 페트로 유로(Petro-Euro)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란 정부는 2006년 12월 자국 보유 외환을 달러화에서 유로화로 바꾸고 석유 판매대금 등 모든 외환거래를 유로화를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음. 이란의 이 조치가 산유국으로 확산될 경우 미국 달러의 약세가 예상됨.
  - 이란의 석유성은 이란석유거래소(IOB: Iran Oil Bourse)의 설립

이란은 역사적으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론을 제기하면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을 전개해 옴

이란은 석유거래소 설립을 통해서 OPEC 회원국을 결집시켜 석유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음

등록을 승인했고 2008년 2월 17일 자유무역지대인 키쉬 섬에 석유 화학제품 거래소를 개장했음. 이란의 석유성은 이 거래소에서 이란의 화폐와 다른 통화로 거래된다고 발표하면서 향후 달러 대신 유로로 거래할 수 있는 석유거래소를 개설하겠다고 말했음.

- 이란은 석유거래소 설립을 통해서 OPEC 회원국을 결집시켜 석유 시장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음.

### 3. 이란의 권력기관

#### 가. 최고지도자

- 이란의 최고통치권자는 최고지도자임.
  - 헌법 제5조에는 “제12대 이맘의 부재시 움마(Ummah: 이슬람공동체)는 그 시대상황에 정통한 공정하고 독실하며 용감하고 책략이 풍부하고 행정능력이 있는 최고지도자에게 위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최고지도자가 사실상 제12대 이맘의 대리인이고 실질적인 국가통치권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함.
  - 헌법 제107조는 최고지도자의 자격요건을 언급하고 있음. “마르자에 타클리드(Marja-e Taqlid)이자 혁명지도자 이맘 호메이니처럼 대다수 국민들로부터 최고지도자로 받아들여지는 경우 그가 최고지도자가 된다. 최고지도자는 국가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 헌법 제110조에는 주요 정책 집행의 감독, 군 통수권, 군사령관 임명권, 대통령 인준권 및 해임권, 사면 및 감형권과 같은 최고지도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최고지도자 사무국은 최고지도자의 회의, 출연, 방문을 관리하며, 정치 상황을 수시로 보고함.
  - 최고지도자 사무국은 모함마드 골파예가니(Mohammad Golpaye-

nagi), 아흐마드 미르-히자지(Ahmad Mir-Hijazi), 알리 알-타스히리(Ali al-Taskhiri), 마흐무드 알-하쉬미(Mahmud al-Hashimi) 4명의 종신 회원으로 구성되었음.

- 최고지도자 사무국은 문화, 경제, 군사 및 언론 분야에서 약 600여명의 특별 보좌관들이 활동하고 있음.
- 최고지도자 대리인(Nemayandeh-ye Rahbar)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 최고지도자 대리인은 일종의 성직자 위원회로 대부분 성직자들임.
  - 최고지도자 대리인은 국내외의 정책에서 특별한 역할을 수행함. 예를 들면, 28개 각 지역의 최고지도자 대리인은 내무부에서 임명된 주지사를 감독할 뿐만 아니라 지역의 금요일예배를 주관함.

#### 나. 대통령

- 이란대통령은 국정의 2인자임.
  -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 직접/보통선거로 선출됨. 임기는 4년이며 3회 이상 연임할 수는 없고, 2회 연임 후 쉬었다가 재차 출마할 수 있음.
  - 대통령은 10명의 부통령과 21명의 장관으로 구성된 내각, 즉 행정부를 관장함.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은 국회의 개별 인준을 받아야 공식적으로 임명되며, 국회는 각료 전체 또는 개별 장관에 대해 불신임권을 가짐. 부통령에 대해서는 국회 인준이 불필요함. 국회의원 1/3의 대통령 불신임 동의가 있고, 2/3가 찬성시 대통령직에서 해임됨.

#### 다. 주요 헌법기구

헌법수호위원회, 전문가회의, 국가조정위원회가 대표적인 기구임.

- 1) 헌법수호위원회(Shura-ya Negahban)

최고지도자 대리인 (Nemayandeh-ye Rahbar)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권위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함

전문가회의는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하고  
해임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

- 헌법수호 위원회의 권한은 이란의 헌법기구에서 결정적이라고 볼 수 있음.
  - 헌법수호 위원회는 헌법 해석권을 가지고 있어서 의회에서 비준된 법률을 심사할 수 있음.(헌법 96조) 헌법수호 자위원회는 헌법을 해석할 수 있고, 또한 그러한 해석이 위원들의 4분의 3의 동의를 얻는 경우 헌법 자체와 같은 효력을 가짐.(헌법 98조)
  - 대통령, 국회의원 및 국민투표의 감독권을 가지고 있음. 헌법수호 위원회는 대통령 입후보자와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자격심사도 하고 있음.(헌법 99조)
  - 헌법수호 위원회는 최고지도자가 임명한 6명의 성직자와 최고사법 위원회에서 추천한 6명으로 구성됨. 임기는 6년이며 3년마다 위원의 1/2이 교체됨.

2) 전문가회의(Majles-e Khobregan)

- 전문가회의는 이란의 최고지도자를 선출하고 해임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음.
  - 콤(Qom)을 기반으로 한 전문가회의는 국민들이 선출하는 86명의 고위성직자로 구성된 기구로 임기는 8년임.
  - 전문가 회의는 헌법 107조에 따라 최고지도자를 선출하고 헌법 111조에 따라 최고지도자를 해임할 수 있음. 전문가회의는 최고지도자가 의무를 완수하지 못하는 경우,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들을 상실한 경우, 처음부터 그러한 자격을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최고지도자를 해임할 수 있음.
  - 최고지도자가 해임될 경우에는 대통령, 법무 분과 위원장, 헌법수호 위원회의 이슬람법 학자로 구성되는 전문가위원회 지도부가 그 직무를 맡음.

3) 국가조정 위원회(Majma-e Tashkhis-e Maslahat-e Nezam)

- 국가조정 위원회는 헌법수호 위원회와 의회 간의 이견을 중재하는 역

할을 수행하는 기구임.

- 국가조정 위원회는 헌법 110조와 112조에 따라 최고 지도자의 자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예를 들면 최고지도자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국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국가조정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에 행동할 수 있음.
- 현재 국가조정 위원회의 의장은 라프산자니이고 위원은 약 30명으로 대통령, 국회의장, 헌법수호 위원회의 이슬람법학자, 제1부통령, 외무, 내무, 국방장관이 참여하고 있음.

4. 이란의 정치구도와 향후 전망

가. 이란의 정치구도

- 이란의 정치 지형은 이슬람 좌파와 이슬람 우파의 두 이념 정파로 구분되며 두 정파는 각각 하위 정파로 나누어짐.
  - 좌파와 우파의 명칭은 각각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에 대한 각 정파의 입장과 관련되어 있고 현대 이란의 정치 상황에서 구분할 수 있음.
  - 이란의 정파는 이슬람법을 둘러싸고 이견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각 정파의 지도부 사이에서 개인적인 적대관계도 잠재되어 있음.
- 이슬람공화당은 제1대 의회(1980-1984)와 제2대 의회(1984-1988)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지만 이슬람 좌파와 이슬람 우파로 분열되었음.
  - 이슬람 우파는 종교적으로는 전통적인 입장, 사회정치적으로는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성직자들과 일부 전문 관료 출신들로 구성되었음. 그들은 대내적으로는 실용주의 노선을, 대외적으로는 현상유지를 지향했음.
  - 이슬람 좌파는 사회주의적 혁명주의자와 좌파 성향의 성직자들로 구성되었음. 그들은 국가가 통제하는 평등주의적 경제 정책을 강조

이슬람 우파는  
대내적으로는 실용주의  
노선을, 대외적으로는  
현상유지를 지향했음.  
이슬람 좌파는 국가가  
통제하는 평등주의적  
경제 정책을 강조했고  
대외적으로는 이슬람혁명  
수출을 주장했음

모든 이념적 정파를 통합할  
강력하게 조직된 단일 정당을  
건설하고자 했던 정치 실험은  
실패로 끝났음

했고 대외적으로는 이슬람혁명 수출을 주장했음.

- 호메이니는 이슬람 좌파와 이슬람 우파의 대립과 갈등을 조정하면서 체제의 위협을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했음.
  - 이슬람공화당의 당내 분화와 분열이 심화되자 더 이상 이슬람공화당을 유지시킬 수 없게 되었음. 1987년 6월 호메이니의 승인 아래 이슬람공화당 지도부는 해체에 합의했음.
  - 모든 이념적 정파를 통합할 강력하게 조직된 단일 정당을 건설하고자 했던 정치 실험은 실패로 끝났음.
- 이슬람공화당 해체 이후 1988년 2개의 정치적 성직자 조직이 출범했음.
  - 이슬람 좌파는 '투쟁하는 성직자들 연맹' (Majma-e Rouhani-e Mobarez: MRM), 이슬람 우파는 '투쟁하는 성직자연합' (Jame-e Rouhaniyat-e Mobarez: JRM)을 창설했음. '투쟁하는 성직자연합'은 1978년 초 창설되었지만 1988년까지 거의 활동하지 않은 채로 존재했음.
  - 이슬람 우파는 전통 우파와 개혁 우파로 분리되었음. '투쟁하는 성직자연합'은 전통 우파로 존재하고 일부가 탈퇴하여 라프산자니를 중심으로 현대 우파를 결성하는데, '이란건설의 활동가들 연합' (Kargozaran Sazandegi-ye Iran)이라고 부름.
- 이슬람 좌파는 '투쟁하는 성직자들 연맹' 과 '이슬람혁명 모자헤딘 조직' (Sazeman-e Mojahedin-e Enqelab-e Eslami)으로 구분됨.
  - 이 두 분파는 정치적으로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1998년 12월 하타미를 중심으로 새로운 개혁 세력이 결집하면서 이슬람 좌파의 내부에 새로운 그룹이 결성되었음. '이란이슬람 참여 정당' (Hezb-e Mosharakat-e Iran-e Eslami)은 개혁지향을 표

방하면서 현대 좌파라고 불림.

- 2005년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출범 이후 급진적인 성직자, 군부 및 민병대를 중심으로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었음.
  - '이란 이슬람의 건설자' (Abadgaran)는 아흐마디네자드와 그의 정신적 지도자인 메스바헤 야즈디(Mesbah-e Yazdi)를 중심으로 결성되었고 이슬람가치의 수호를 강조하는 보수파와는 달리 12대 이맘 마흐디의 재림을 설파하는 마흐디주의(Mahdism)와 평등주의를 역설하고 있음.
- 1) 전통 우파(Jame-e Rouhaniyat-e Mobarez: JRM)
  - 전통 우파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은 '투쟁하는 성직자연합' 임.
    - 콤 신학교 교사협의회(Jame'e-Modarresin-e Houze-ye-Elimiye Qom)의 절대 다수가 이 조직에 소속되어 있고 전국적인 상인단체, 종교단체의 네트워크를 보유하고 있음.
    - '투쟁하는 성직자연합'은 원칙적으로 사유재산과 사기업을 옹호함. 1982년 이후 이슬람 좌파의 토지 개혁과 자산 몰수 확대를 반대해 왔다. 그들은 빈부의 차이를 신이 만든 질서의 본질이라고 해석함.
    - 그들은 계급 갈등을 종교적 자선행위와 같은 종교적 결속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함. 그들은 1993년 이후 빈곤층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확대하는 경제정책을 강조했음.
  - 전통 우파는 이슬람법학자통치론을 토대로 시아파 성직자의 영향력을 강조함. 그들은 신정주의 국가모델을 선호하며 서구의 자유주의 문화침투를 무엇보다도 경계함.
- 2) 현대 우파(Kargozaran Sazandegi-ye Iran)
  - 전문 관료 출신으로 알려진 현대 우파는 전통 우파에 비해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서 훨씬 더 자유주의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음.
    - 현대 우파는 조직 보다는 1989년부터 1997년까지 대통령을 지낸

2005년 아흐마디네자드 정권 출범 이후 급진적인 성직자, 군부 및 민병대를 중심으로 사회정의를 강조하는 새로운 조직이 결성되었음

이란-이라크전쟁(1980년-1988년) 동안 이슬람 좌파는 엄격한 긴축 정책과 국가통제 경제를 지지

라프산자니를 중심으로 형성되었음.

- ‘이란건설의 활동가들 연합’의 지지자들은 전문직 종사자 단체, 기업인 단체 및 중산층이 포함되어 있음. 현대 우파의 1차적 목표는 이란을 현대국가로 탈바꿈시키는 것임.
- 그들은 1979년 이슬람혁명의 기본 원리를 지지하지만 이란의 경제 발전과 산업화를 통한 국가적 주권을 강조함. 그들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란의 국익을 표방하면서 이란사회의 현대화를 목표로 두고 있음.

3) 이슬람 좌파(Majma-e Rouhanione Mobarez: MRM)

○ 1980년에서 1992년까지 이슬람 좌파는 의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했음. 특히, 이란-이라크전쟁(1980년-1988년) 동안 이슬람 좌파는 엄격한 긴축 정책과 국가통제 경제를 지지했으며, 사회, 문화적 사안들에 대해 보다 규제적인 절차들을 입안했고 대외적으로는 이슬람혁명 수출을 주장했음.

- 이슬람 좌파에서 가장 강력한 조직은 카루비(Mehdi Karrubi)가 이끄는 ‘투쟁하는 성직자들 연맹’ (Majma-e Rouhanione Mobarez: MRM)이다. 카루비는 1980년에서 1992년까지 순교자 재단의 대표를 지냈음. 이슬람 좌파는 전통 우파와는 달리 광범위한 이념적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 ‘투쟁하는 성직자들 연맹’에는 이슬람혁명 수출이론을 주장하는 모흐타세미-푸르(Ali Akbar Mohtashemi-Pur), 미대사관 인질사태의 주역인 무사비-후이니하(Mohammad Musavi-Khuiniha)가 있음. 또한 제7대와 제8대 이란 대통령인 하타미도 이 조직에서 활동하고 있음.

- 이슬람 좌파는 1997년 하타미 정권 출범 이후 커다란 사상적인 변화를 보이고 있음. 이슬람 좌파는 사회적, 문화적인 문제에서 기존의 강경론에서 점차 온건론으로 변화되었고 이란사회의 변화와 개혁을 강조하게 되었음.

4) 신보수파

○ ‘이란 이슬람의 건설자’ (Abadgaran)는 2003년 지방의회 선거와 2004년 의회선거를 통해 결성되었고 이 조직의 지도자는 아흐마디네자드임.

- ‘이란 이슬람의 건설자’는 이슬람민병대와 이슬람혁명수비대와 연계했고 2003년 5월 3일 제2회 테헤란 시의회에서 아흐마디네자드는 테헤란 시장으로 당선되었음.

- 신보수파는 전통 우파와 커다란 차이점을 가지고 있음. 첫째, 신보수파는 전통 우파의 사유재산과 사기업에 대한 옹호를 비판하면서 국가 주도의 통제정책을 주장했다. 둘째, 신보수파는 이슬람 가치보다도 사회정의와 평등을 우선시했음.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일부에서는 신보수파를 신좌파라고도 부름.

- 2005년 제9대 이란대통령 선거에서 아흐마디네자드가 당선되었고 이는 이란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 아흐마디네자드는 이슬람강경노선을 주창하면서 보수파와의 연대를 추진하지만 그의 주요 지지기반은 군부와 민병대임.

- 2005년 제9대 이란대통령 선거 이후 아흐마디네자드는 마흐디주의를 강조하게 되었음. 아흐마디네자드의 정신적 지도자인 메스바헤야즈디는 제12대 이맘 마흐디의 재림을 강조하면서 현 상황에서 인간이 나서서 마흐디의 재림을 예비해야 한다는 신학적 해석을 주장하고 있음. 신보수파는 마흐디 교리를 부각시켜 강력한 이슬람사회를 구축하려고 함.

나. 2009년 대선과 향후 전망

○ 제10대 이란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대의 모습은 연일 외신면 톱기사를 장식하면서 지구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음.

- 많은 서구 언론들은 이번 사태를 이란이슬람공화국에 저항하는 시민봉기로 그렸음. 또한 일부 언론은 이란 사태를 우크라이나의 오렌지혁명과 같은 친서방운동으로 묘사했음. 하지만 이번 사태는 선거

제10대 이란 대통령 선거 이후 부정선거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대의 모습은 연일 외신면 톱기사를 장식하면서 지구촌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란의 권력구도가 성직자에서 군부로 이동하고 있음.

하메네이는 군부의 지원으로 이번 위기를 해결하고자 함

쿠데타에 대한 저항일 뿐임.

- 이슬람공화국 틀 내에서의 개혁이라고 볼 수 있음. 개혁파 지도자 무사비는 이슬람공화국 체제를 거부하는 반체제 지도자도 아니고 친서방주의자도 아님. 이번 사태는 체제와 반체제의 대립이 아니라 체제 내의 갈등임.

- 이슬람정부론과 이슬람공화국론의 대립과 갈등임. 이란은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슬람공화국이라는 독특한 정치체제를 수립했음. 이슬람은 체제의 내용을 의미하고 공화국은 체제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구체적인 정책과 노선을 둘러싸고 크게 두 세력으로 구분됨.

- 이슬람정부론 진영은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와 아흐마디네자드 대통령을 중심으로 최고지도자의 절대 권력을 강조하면서 이슬람법학자 절대통치론을 주장하고 있음. 그들은 최고지도자를 신의 대리인으로 규정하고 있음. 반면에 이슬람공화국론 진영은 무사비, 카루비, 라프산자니 전문가회의 의장 및 하타미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공화국 체제를 강조하면서 전문가회의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지위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그들은 이번 사태를 이란 민주주의의 위기로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사태를 계기로 이란의 권력구도가 성직자에서 군부로 이동하고 있음. 하메네이는 군부의 지원으로 이번 위기를 해결하고자 함.

- 아흐마디네자드는 이슬람혁명수비대와 민병대를 지지기반으로 가지고 있고 2005년 그의 당선은 군부의 영향력을 확대시키는 계기가 되었음. 하메네이는 군부를 통해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려 하지만 오히려 군부의 힘이 더 막강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5.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현황과 전망

○ 이란의 핵 위기는 2002년 8월 이란 정부가 비밀 핵시설에서 우라늄 농축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반체제단체 이란국민저항협의회

제기에 의해서 표면화되었음. 하지만 이란의 핵 사태는 사실상 중형 탄도 미사일 개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2002년 2월 20일 이란은 유효 탑재량 1.2톤, 사정거리 약 1,300km의 중형탄도 미사일인 샤하브 3(Shaha-3)를 실전 배치했음. 이란의 핵개발 목적은 정치군사적 측면으로 주변국의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임. 이란의 주변국은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이스라엘, 인도, 파키스탄이 있음.

### 가. 이란의 핵 개발 프로그램

○ UN은 핵 개발 프로그램 때문에 이란에 제재나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이란은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추구하고 있고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

- 이란의 핵개발은 근본적으로 이란-이라크 전쟁에서 이라크 스커드 미사일에 의한 화학무기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게 이에 따라 공격과 방어의 목적을 위해 스스로 무장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음.

○ 이란의 핵 문제는 2002년 8월 이란의 반체제 단체 이란국민저항위원회(NCR : National Council of Resistance)가 핵개발과 연계된 2개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미신고 시설의 존재와 세부관련 정보를 폭로하면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게 되었음.

- 이란국민저항위원회는 사실상 무자헤딘 할크의 전위조직이라고 볼 수 있음. 무자헤딘 할크는 이슬람공화국에 반대하는 가장 규모가 큰 군사조직으로 이라크에 군사캠프를 가지고 있고 유럽, 미국 및 캐나다에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음.

- 이란의 핵 의혹은 중형탄도 미사일 개발과 관련되어 있음. 이란은 2000년 2월 20일 유효 탑재량 1.2톤, 사정거리 약 1,300km의 중형 탄도 미사일 샤하브 3(Shahab-3)을 개발했음. 미국 정부는 샤하브-3 미사일을 통해 이란이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및 터키를 공격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공함으로써 중동 지역의 군사적 균형을 상당 부분 변화시킬 것임을 인정했음.

UN은 핵 개발 프로그램 때문에 이란에 제재나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이란은 지속적으로 핵개발을 추구하고 있고 핵무기 보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있음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은 이스라엘과  
터키의 군사협정이 체결된  
이후임

- 이란의 샤하브-3 미사일 개발은 두 가지 이유에서 중요함. 첫째, 이란이 중동 지역에 있는 미국의 모든 주요 동맹국들을 공격할 수 있는 운반체계를 갖게 됨. 둘째, 샤하브-3 미사일은 대량살상무기의 운반을 위해 고안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 샤하브-3 미사일의 최초 발사 실험은 1998년 8월이었지만, 최초 테스트가 있기 18개월 전만 해도 미국 정보부 관료는 이란이 그 정도 범위의 미사일을 획득하려면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의회에 보고했음.
- 이란이 핵 개발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지만, 핵 개발을 고집하는 이유는 이란 주변 정치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이스라엘은 언제든지 원자로나 군사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잠재적인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음.
  - 국경을 접하고 있는 파키스탄 역시 핵을 보유하고 있음. 이란 주변국의 핵보유국 사이에서 이란은 더욱 핵 개발 의지를 강하게 굳히게 되는 배경이 됨.
  - 이란이 핵 프로그램 개발에 박차를 가한 것은 이스라엘과 터키의 군사협정이 체결된 이후임.
  - 1990년대 중반부터 이스라엘과 터키가, 최근 들어와서 터키정부가 이슬람정부로 바뀌고, 90년대 중반부터 군사협정을 맺은 후, 미국, 이스라엘, 터키 3개국이 동지중해에서 매년 1월 해상군사훈련을 하고 있고 이 훈련의 목적은 바로 이란을 공격하는 가상 시나리오에 기초해 있다는 점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이란은 핵 개발을 추진함.

나. 이란 핵시설 파괴 가능성 VS 이란의 핵 민족주의

-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 시설을 파괴할 가능성과 관련, 최근 언론에서는 이스라엘은 무인공급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란의 핵시설 파괴가 가

능하다는 것을 전함.

- 최근의 이스라엘의 입장은 F-16전투기에 무기가 탑재된 후 무인주입기를 이용하여 주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란의 핵시설 파괴가 가능하다고 밝힘.
  - 이스라엘이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이라크와 터키의 군사기지를 통하여 이란을 타격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라크와 터키는 군사기지를 대여하지 않기 때문에, 무인주입기를 이용해서, 상공에서 연료를 주입받고 이란을 타격하고 돌아오는 경우 이란의 핵시설 파괴가 가능할 것을 밝힘.
- 이란은 핵문제를 석유민족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핵 민족주의의 운동으로 보고 있음.
- 1951년에 이란에서 일어난 '석유국유화운동'은 'OPEC'의 직접적인 탄생에 기여했고, 산유국에서 최초로 자원을 국유화 시켰던 사건이었음.
  - 아랍 산유국들이 이전에는 석유 배럴당 약 20센트 또는 25센트를 받았지만 이 사건 이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음.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메이저와 50 대 50 계약을 체결했음.
  - 1960년 9월 세계석유수출의 85% 이상을 차지했던 사우디 아라비아, 이란, 이라크, 쿠웨이트 및 베네주엘라는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회의를 개최했음. 이 회의에서 석유수출국기구(Organization of Petroleum Exporting Countries: OPEC)를 결성했음. 이 기구는 석유메이저에 대하여 산유국의 발언권을 강화하기 위한 만들었음.
  - 이란 위정자들은 핵 프로그램을 과거의 석유민족주의 운동과 결합시키고 있고, 이란 내에서는 광범위하게 지지를 받고 있음.
  - 개화파와 보수파 모두 핵 프로그램 개발에 대하여 지지하고 있으며 개화파는 "협상을 통해서 핵 개발을 추진할 것인가?"를 그리고 보수파는 "강경책으로서 추진할 것인가?"를 고려하는 차이만 있고 핵

이란은 핵문제를 석유민족주의의 연장선상에서 핵 민족주의 운동으로 보고 있음

이슬람과 서구식 민주주의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치 실험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가 모두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해결의 순서에서는 이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

개발을 고수하고 있음.

다. 이란의 핵무기 개발 전망

- 이란의 강한 핵무기 보유의지 관련하여, 이란 주변국들의 군사적인 위협들, 핵 보유력, 미국의 직접적인 공격은 아니지만 끊임없이 진 행되고 있는 저강도 전쟁은 이란으로 하여금 현재의 핵무기 개발의 지를 강하게 만들고 있음.
- 이란은 지형적으로 마약밀매단의 요충지로서의 역할을 함. 즉 아프 가니스탄은 마약의 최대 재배지이고, 아프가니스탄의 마약이 유럽 으로 들어가는 지역의 대부분은 이란이나 파키스탄 지역임. 주로 마 약밀매단은 이란의 동부 지역에서 터키로 많이 들어가게 됨. 이란의 동부 아프간 접경지역은 굉장히 험난하여 정부의 통제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곳임.
- 최근 이란 동부지역에서 반정부 지도자 '리기'(CIA에서 직접적인 군수물자와 자금을 지원받는 마약밀수단체)가 구속됨. 이 단체는 현 대식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고, 그 중 일부가 저항운동을 하는 반군 을 조직했고, 이 반군을 CIA가 지원했는데 최근에 붙잡힘.
- 그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이란의 입장은 언제든지 미국은 이란 체제 를 전복시킬 음모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스스로 핵을 보 유하지 않으면 이 체제가 붕괴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음.
- 미국은 북한과 이란의 핵문제가 모두 중요하다고 보고 있지만 해결 의 순서에서는 이란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 이는 이란의 중요성, 중동의 상황 그리고 이스라엘의 관계에 있음. 이에 따라 미국은 이란 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협상보다는 제재조치를 추진하고 있음.

6. 결론

- 이란은 중동에서 매우 중요한 국가이며 이란인들은 사실상 중동의

역사를 움직인 주역이었음.

- 이란은 1906년 입헌혁명으로 중동 최초의 근대화 혁명을 일으켰고, 1951년 석유국유화법안을 통과시켜 자원민족주의 운동을 확산 시켰음.
- 1979년 이슬람혁명을 통해 이슬람 세계에서 이슬람원리주의 운동 을 확산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슬람원리주의 운동을 확산 시킨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했음.
- 지금 이란은 새로운 정치 실험을 진행하고 있음.
- 이번 대선에서 이란 국민들의 선거 열기와 정치 참여는 이슬람혁명 이후 또 다른 이슬람 정치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음. 이것은 이 슬람과 서구식 민주주의를 어떻게 결합시킬 것인가에 대한 새로운 정치 실험을 의미함.
- 이번 사태는 이슬람혁명 30주년과 호메이니 사망 20주기를 맞이한 시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커다란 정치적 의미를 가지고 있음.
- 이것은 이슬람의 가치를 현대사회에서 어떻게 구현하는가를 통한 논의에서 출발했음. 이슬람 민주주의와 서구식 민주주의를 현대사 회에서 어떻게 결합시킬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방향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찾아볼 수 있음.
- 이번 사태는 이슬람혁명 이후 또 다른 이슬람정치 실험을 의미함. 이번 사태를 계기로 최고지도자의 자격과 선출방식에 대한 새로운 논의가 확산될 전망이다.

편집 이성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위원)